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5. 12. 28. ~ 2016. 1. 3.

전남농업정보

66

VOL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

양배추 · 감자 제외한 엽근채류 봄작형 재배의향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전남쌀 4개 브랜드 전국 12대 고품질 쌀 선정
광양시, 창조농업으로 농업 농촌 경쟁력 키운다
곡성 '맘앓담은 딸기' 동남아 첫 수출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전남 벼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7곳으로 확대 계획
겨울철 난방 에너지 절감 패키지화로 생산비 절감

정책 동향

기술 농업으로 한·중 FTA 대비 경쟁력 강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해외 농업정보

일본, IT기술 활용한 토마토 생산 효율화 실시
스페인, 기능성 차(茶) 소비 증가

해외 곡물시장 동향 '15. 12. 28. (시카고 선물거래소)



전라남도
JeollaNamdo



요약

❁ 주간 기상전망 6

- 기압골의 영향으로 31일은 눈 또는 비가 오겠으며,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강수량은 평년(0~1mm)과 비슷 하겠음

❁ 월동작물 관리 9

- 보리·마늘·양파 : 눈, 비 오고난 뒤 물이 잘빠지도록 배수로 관리하여 습해피해 예방
- 잦은 강우와 일조시간이 적어 시설채소 병해 예방을 위한 시설환경 관리에 유의

❁ 농산물 재배 동향 11

- 양배추·감자를 제외한 엽근채류 봄작형 재배의향 면적 감소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2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4

- ▶ 전남쌀 4개 브랜드 전국 12대 고품질 쌀 선정
- ▶ 순천농민 박승호, 2015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정
- ▶ 광양시, 창조농업으로 농업 농촌 경쟁력 키운다
- ▶ 곡성 '맘애탄은 딸기' 동남아 첫 수출
- ▶ 해남군, 미니밤호박 출하 시작 겨울철 간식으로 제격
- ▶ 장성군, 2015년 맞춤형 축산시책 '빛났다!'
- ▶ 진도군, 베타후레시 쌈배추 본격 출하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4

- ▶ 전남산 골드키위 '해금' 24일 일본 첫 수출길 올라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5

- ▶ 농촌진흥청, 겨울철 시설원예 농가 난방비 절감 방안 소개
- ▶ 전남 벼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7곳으로 확대 계획
- ▶ 겨울철 난방 에너지 절감 패키지화로 생산비 절감
- ▶ 생산비 절감 모델 및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결과 평가회 열려

❁ 정책 동향 30

- ▶ 농식품부, 농업분야 ICT 융복합 확산으로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을 구축한다!!!
- ▶ 기술 농업으로 한·중 FTA 대비 경쟁력 강화!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 전남도 상생협력 '서울농장' 본격 추진
- ▶ 식물 바이러스 조립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
- ▶ 창의력 증대를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 신기한 디자인 제품
- ▶ 농촌진흥청, 식의약품 신소재용 등 유용 유전자원 47개 발굴
- ▶ 슈퍼곡물, 왜 인기일까?

❁ 해외 농업정보 41

- ▶ 일본, IT기술 활용한 토마토 생산 효율화 실시
- ▶ 스페인, 기능성 차(茶) 소비 증가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5. 12. 24)
 - 밀 : 상품투자정보업체(Lanworth)에 따르면 인도의 2016년 밀 생산량은 고온건조 기후의 제약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에 그친 90.7백만 톤으로 전망됨

- 옥수수 : 상품투자정보업체(Lanworth)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2015/16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4% 감소한 28.6백만 톤으로 전망됨
- 대두 : 상품투자정보업체(Lanworth)에 따르면 브라질의 2015/16년 대두 생산량은 종전 전망치 대비 0.9백만 톤 증가한 104백만 톤으로 전망됨(전년 96.2백만)
- 쌀 : 파키스탄 통계국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1~5월 쌀 수출 총계는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한 1.58백만 톤임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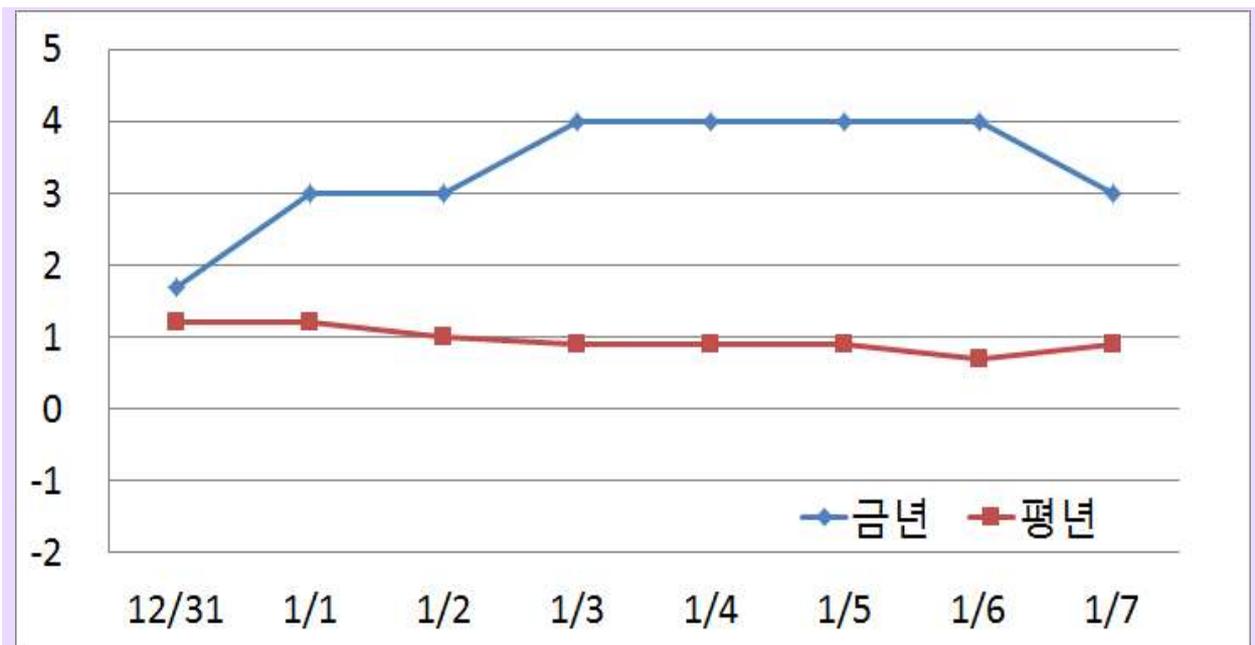
- ▶ 2016년도 농업인 교육계획(전라남도) 확정
- ▶ 국제, 국내농업박람회 통합 2017년부터 2년마다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 ▶ 전남농업기술원, 전국 농촌진흥사업 우수 기관상 수상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3.3	1.0	2.4	6.8	5.7	1.0	-0.1	-2.9	2.9	0.9
12. 31.(목)	1.7	1.2	0.5	6.0	5.9	0.1	-2.7	-2.7	0.0	1.0
1. 1.(금)	3.0	1.2	1.8	7.0	5.9	1.1	-1.0	-2.8	1.8	0.7
1. 2.(토)	3.0	1.0	2.0	7.0	5.8	1.2	-1.0	-2.9	1.9	0.8
1. 3.(일)	4.0	0.9	3.1	7.0	5.7	1.3	1.0	-3.0	4.0	0.7
1. 4.(월)	4.0	0.9	3.1	7.0	5.8	1.2	1.0	-3.0	4.0	0.9
1. 5.(화)	4.0	0.9	3.1	7.0	5.7	1.3	1.0	-3.0	4.0	1.0
1. 6.(수)	4.0	0.7	3.3	7.0	5.5	1.5	1.0	-3.1	4.1	0.9
1. 7.(목)	3.0	0.9	2.1	6.0	5.6	0.4	0.0	-3.0	3.0	1.0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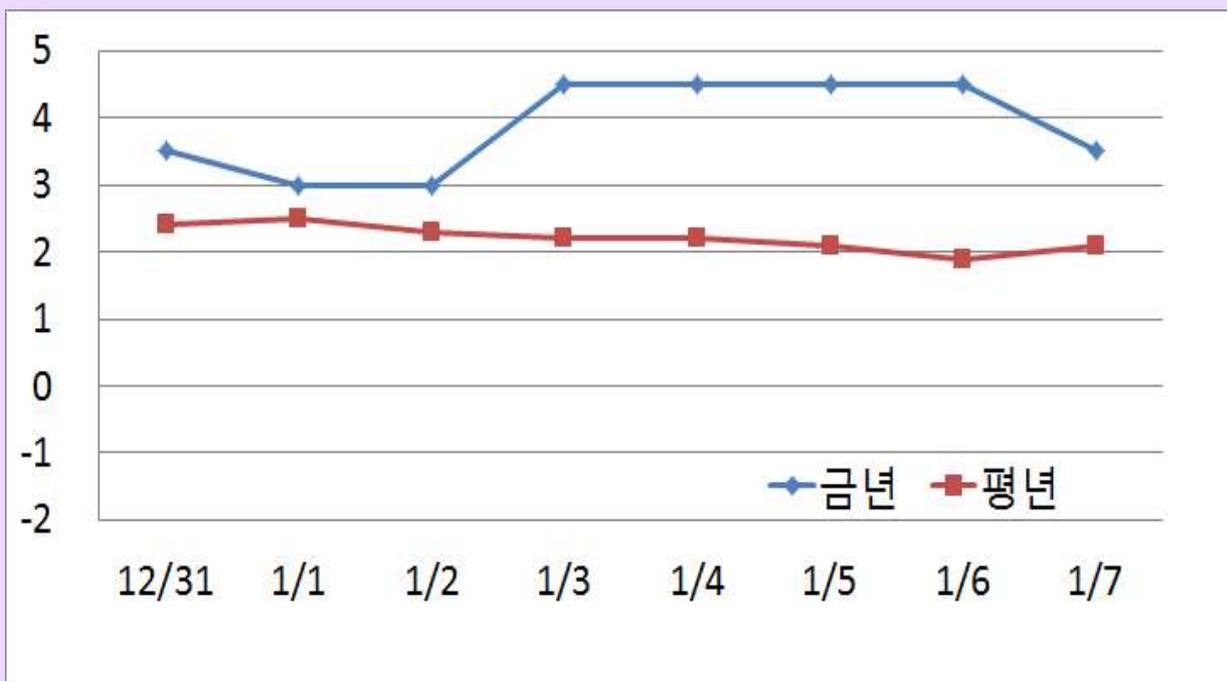


<평균 기온(°C)>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3.9	2.2	1.7	6.8	6.8	0.0	1.0	-1.1	2.1	0.9
12. 31.(목)	3.5	2.4	1.1	6.0	7.0	-1.0	1.0	-0.9	1.9	0.6
1. 1.(금)	3.0	2.5	0.5	7.0	7.1	-0.1	-1.0	-0.9	-0.1	0.7
1. 2.(토)	3.0	2.3	0.7	7.0	6.9	0.1	-1.0	-1.0	0.0	0.7
1. 3.(일)	4.5	2.2	2.3	7.0	6.8	0.2	2.0	-1.1	3.1	0.8
1. 4.(월)	4.5	2.2	2.3	7.0	6.8	0.2	2.0	-1.2	3.2	0.8
1. 5.(화)	4.5	2.1	2.4	7.0	6.7	0.3	2.0	-1.3	3.3	1.1
1. 6.(수)	4.5	1.9	2.6	7.0	6.4	0.6	2.0	-1.4	3.4	1.1
1. 7.(목)	3.5	2.1	1.4	6.0	6.5	-0.5	1.0	-1.3	2.3	1.2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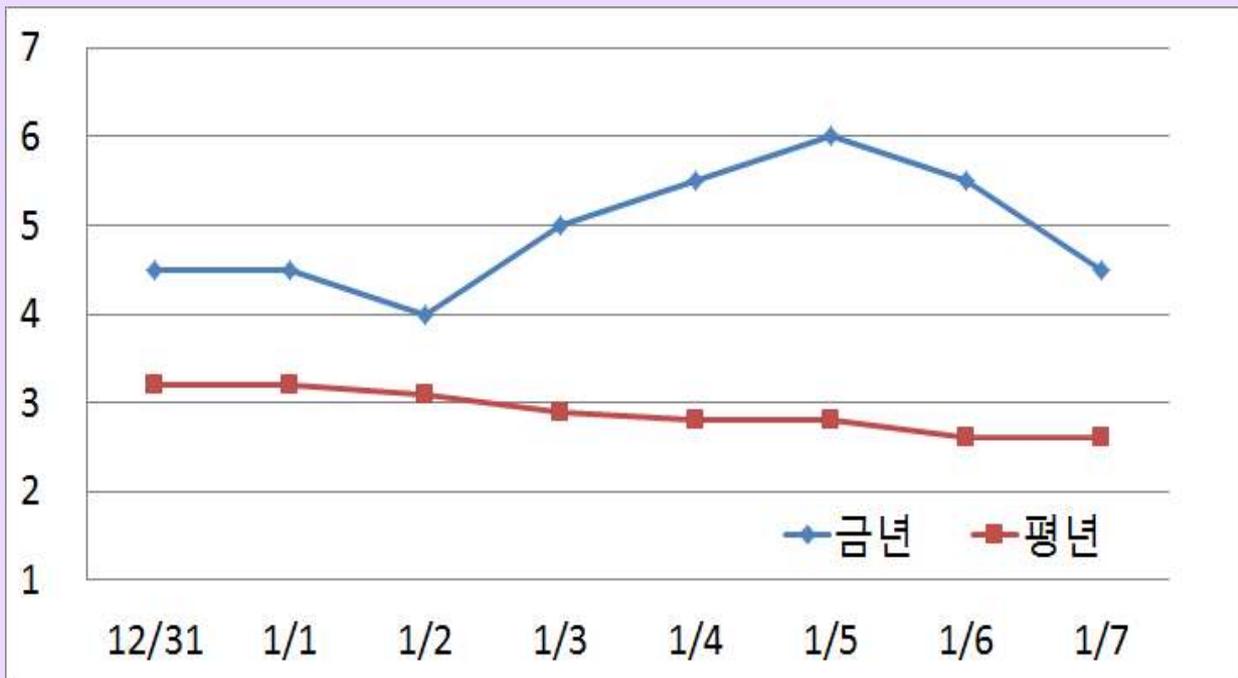


<평균 기온(°C)>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4.9	2.9	2.0	7.6	6.8	0.8	2.3	-0.3	2.6	0.7
12. 31.(목)	4.5	3.2	1.3	7.0	7.1	-0.1	2.0	-0.2	2.2	0.3
1. 1.(금)	4.5	3.2	1.3	8.0	7.2	0.8	1.0	-0.1	1.1	0.5
1. 2.(토)	4.0	3.1	0.9	7.0	7.0	0.0	1.0	-0.2	1.2	0.5
1. 3.(일)	5.0	2.9	2.1	7.0	6.8	0.2	3.0	-0.3	3.3	0.6
1. 4.(월)	5.5	2.8	2.7	8.0	6.8	1.2	3.0	-0.3	3.3	0.7
1. 5.(화)	6.0	2.8	3.2	9.0	6.6	2.4	3.0	-0.3	3.3	1.0
1. 6.(수)	5.5	2.6	2.9	8.0	6.4	1.6	3.0	-0.6	3.6	1.0
1. 7.(목)	4.5	2.6	1.9	7.0	6.5	0.5	2.0	-0.5	2.5	1.0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C)>

2. 월동작물 관리

보리의 월동기 전·후 재배관리

- 따뜻한 초겨울, 보리는 힘들다. 보리의 월동기 전·후 재배 관리 요령
 - 보리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식량작물이고 특히,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전남은 월동기의 기후적 조건으로 타 도에 비해 가장 적합한 작물이다.
 - 한 때 20만ha가 재배되었으나 식량자급화 및 식생활 변화에 의한 소비감소의 영향으로 재배면적도 크게 감소되어 현재는 15,000ha에 불과하다.
 - 하지만 아직도 전남의 대표적인 겨울철 소득작물이고 밀 자급을 향상 및 사료작물 수요증가에 따라 재배면적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올 10월부터 11월 중순의 좋은 기상 덕분에 파종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었다.
 - 그러나 지금까지 따뜻한 기온이 유지되면서 지속적인 강우로 과도하게 밀파한 포장에서 은보리의 생육이 도장되어 비절현상, 습해 등에 의한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
 - 반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재배된 보리는 오히려 습해에 의한 생육저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에서 12.10일에 실시한 맥류 작황조사 결과 기온은 평년보다 1.6℃가 높았다.



- 특히, 11월중순은 5.3℃가 높았고 더구나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174%, 강수는 전체 71일중 47%인 33일 동안 비가 내려 포장의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포장은 오히려 고사하는 등의 습해가 심하게 발생되고 있다.
- 전남은 논재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습해피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 12월부터 2월상순은 보리의 생육특성상 휴면상태로 생육이 정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따뜻한 기온으로 생육이 진행되어 과번무한 상태에서 추위가 올 경우 동해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배수가 잘 되도록 포장관리를 해주고 2월10일 전후로 기온이 차츰 올라가면서 보리의 생육이 다시 시작되는 때에 웃거름을 주어 생육을 촉진시키고 땅이 푸석하게 되어 뿌리가 들뜨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리밟기(답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3. 농산물 재배 동향

엽근채류 봄작형 재배 동향

- 양배추·감자를 제외한 엽근채류 봄작형 재배의향면적 감소
 - 시설 재배의향면적 배추는 금년보다 4%, 무·당근은 금년보다 10% 내외 감소하고 감자·양배추는 금년보다 5% 이내 증가
 - 노지 재배의향면적 배추·무는 금년보다 5% 이내, 당근은 금년보다 9% 감소하고 감자·양배추는 금년보다 5% 이내 증가
 - 아직 초기 재배의향이어서 향후 정식기 가격이나 대체재 가격 변화에 따라 의향은 변동가능성이 있을 전망

□ 2016년 엽근채류 봄작형 재배의향면적 금년 및 평년 대비 증감률

감자	당근	양배추
2.9	-8.7	4.0
-28.8	8.7	0.4
5.0	-9.1	2.2
-12.1	-9.3	7.4
4.9	-8.8	2.6
-13.4	1.9	5.0

주 : 2016년 봄배추·봄무 재배의향면적은 금년 재배면적 감소로 평년 대비 감소 폭이 커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12. 28.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2/28)	1주일전 (12/2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43,663	43,834	43,428	45,595	45,216	↓4.2	↓3.4
	콩(백태)	35kg	4,304	4,304	4,305	4,352	5,009	↓1.1	↓14.1
	고구마(밤)	1kg	3,968	3,890	3,887	4,057	4,198	↓2.2	↓5.5
	감자(수미)	100g	245	259	283	244	272	↑0.4	↓9.9
채 소 류	배추(가을)	1포기	2,160	2,123	2,211	1,959	2,308	↑10.3	↓6.4
	양배추	1포기	2,489	2,391	2,379	2,505	2,858	↓0.6	↓12.9
	오이(다다기계통)	10개	8,913	9,270	9,742	9,994	8,717	↓10.8	↑2.2
	애호박	1개	1,889	1,837	1,615	2,004	1,707	↓5.7	↑10.7
	토마토	1kg	3,993	3,590	3,210	4,393	5,146	↓9.1	↓22.4
	무(가을)	1개	1,481	1,454	1,376	1,381	1,636	↑7.2	↓9.5
	당근	1kg	2,583	2,658	2,637	2,119	2,828	↑21.9	↓8.7
	건고추(화건)	600g	10,608	10,608	10,608	10,648	11,764	↓0.4	↓9.8
	풋고추	100g	1,075	883	858	1,195	1,025	↓10.0	↑4.9
	마늘(깐마늘)	1kg	9,970	9,890	9,250	7,010	6,877	↑42.2	↑45.0
	양파	1kg	2,629	2,675	2,506	1,289	1,695	↑104.0	↑55.1
	대파	1kg	3,252	3,194	3,113	2,506	2,661	↑29.8	↑22.2
	파프리카	200g	1,171	1,149	925	1,822	1,948	↓35.7	↓39.9
	방울토마토	1kg	5,153	4,993	3,975	5,859	7,456	↓12.0	↓30.9
수박	1개	23,974	22,685	15,337	17,358	18,701	↑38.1	↑28.2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36,400	36,400	36,000	36,400	48,887	↑5.5	↓2.4
	배(신고)	15kg	43,600	43,600	41,900	33,800	41,867	↑1.0	↓5.0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2/28)	1주일전 (12/2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4,000	534,000	532,000	514,000	558,333	↑0.8	↑0.0
	들깨	45kg	418,000	418,000	418,000	421,500	396,233	↓9.4	↓10.5
	새송이버섯	2kg	8,600	8,400	8,400	7,050	8,168	↓13.1	↓17.7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647	7,793	7,799	6,678	6,442	↑17.6	↑24.6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36	1,922	1,902	2,004	1,780	↑2.2	↑12.4
	닭고기	1kg	5,298	5,006	5,184	5,210	5,430	↑7.4	↑5.0
	계란(특란)	30개	5,258	5,571	5,329	6,008	5,628	↓6.0	↓1.5
	우유	1리터	2,550	2,550	2,550	2,546	2,390	↑0.1	↑6.8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12. 28.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683 천원	5,862 천원	4,584 천원	↓ 3.1	↑ 24.0
	거세	6,402 "	6,278 "	5,192 "	↑ 2.0	↑ 23.3
송아지 (6~7월)	암	2,576 "	2,617 "	1,713 "	↓ 1.6	↑ 50.4
	수	3,072 "	2,982 "	2,265 "	↑ 3.0	↑ 35.6
육우(600Kg)	3,284 "	3,227 "	3,358 "	↑ 1.8	↓ 2.2	
젖소수송아지(7일령)	218 "	218 "	39 "	-	↑ 459.0	
돼지(110kg)	298 "	345 "	396 "	↓ 13.6	↓ 24.7	
육계(원/kg)	1,623 원	1,584 원	1,658 원	↑ 2.5	↓ 2.1	
계란(원/특란10개)	1,036 "	1,031 "	1,356 "	↑ 0.5	↓ 23.6	
오리(원/kg)	1,833 "	1,833 "	2,667 "	-	↓ 31.3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5.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전남쌀 4개 브랜드 전국 12대 고품질 쌀 선정

- 강진 ‘프리미엄 호평’ 등 전남 4개 브랜드 쌀이 올해의 전국 12대 고품질 쌀에 선정됐다.
-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 2015년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강진군농협 ‘프리미엄 호평’, 해남옥천농협 ‘한눈에 반한 쌀’, 무안군농협 ‘황토랑쌀’(은상), 영암군농협 ‘달맞이쌀 골드’(동상) 등 총 4개 브랜드다.
- 이와 별도로 보성군농협 ‘녹차미인쌀’이 지역을 빛낸 쌀로 선정되는 등 전남은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품질 브랜드 쌀이 선정된 지역이라는 명성을 이어갔다.
- 전남쌀은 전국 브랜드 쌀 평가가 도입된 2003년부터 매년 최다 브랜드 선정의 영예를 놓치지 않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순천농민 박승호, 2015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정

- 순천시 해룡면 박승호 농가는 지난 23일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에 선정됐다.
-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은 창의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농업기술명인을 발굴해 서류심사 30%, 현장심사 70%로 진행해 각 분야별 5명을 선정한다.

- 박승호 농가는 유기농 벼를 10년 이상 재배해 본인만의 이름을 건 고집불통 오색미를 생산하고 있다.
- 또한 스스로 배우고 탐구하는 열정으로 전라남도에서 지정하는 유기농업명인에 선정됐고 전라남도 친환경대상, 전라남도 농업인 대상, 농협중앙회 새농민상을 수상한바 있다.
- 이러한 점들이 인정돼 이번 최고농업기술명인에 선정됐고 시상금 500만원을 받게 됐다.
- 박승호 농가는 “순천시 농산물을 최고 명품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식량 분야의 최고 농업 기술을 널리 알리는 전도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박씨는 현재 농촌지도자순천시연합회 해룡면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 출처 : 순천시

■ 광양시, 창조농업으로 농업·농촌 경쟁력 키운다

- 농산물 마케팅과 6차 산업화로 지역 농업 선도 -

- 광양시는 농산물 마케팅과 6차산업화 등의 창조농업으로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 시는 시장 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과 소비자 구매패턴 등의 시장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농업마케팅과를 신설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하며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고 있다.
- 다양한 농산물 마케팅의 전략적 추진 시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 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먼저 올해 관내, 수도권, 홍콩, 미국 등 국내·외 25개소에서 판촉 활동을 펼쳐 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러한 판촉활동을 통해 농가(업체)는 고객 접점의 기회를 늘려 소득을 창출한 것은 물론 마케팅 실습과 벤치마킹으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배울 수 있었다.
- 홍보는 지면 뿐 아니라 온라인 홍보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농·특산물 구입처 웹페이지를 신설했다. 또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남도장터'에 파프리카·토마토·표고버섯·돌배즙의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 농산물 국가기관 인증 확대를 위해 우수농산물관리(GAP) 인증 신청 수수료와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여 밤·배·쌀·파프리카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223ha의 GAP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 가공분야에서는 매실가공 관련 2개 업체 9품목에 대해 유기가공 식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 또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은 상반기에 고로쇠장류로 1개 업체 3품목이 허가되었으며, 하반기에는 매실가공제품, 마을반찬사업 등 3개 업체 15품목을 신청했다.
- 아울러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농협시지부와 6개 지역농협이 참여하는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광양시연합사업단 통합마케팅 조직을 발족했다. 또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 물류비와 포장재비, 해외시장 마케팅비를 지원했다.
- 지난 4월 전남 최대 규모로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대표적인 유통 구조개선 사례로, 현재 230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182개 품목의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개장 이후 지금까지 17억 원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등 농산물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농업과 농촌의 6차산업 현장 이야기

- 시는 매실 중심의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매실발효용기 1,700여개, 매실발효탱크 93톤,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에 4개소를 지원했다. 세월호, 메르스로 위축된 매실 소비를 촉진하고자 광양 매실청 14,110L를 관내 학교에 공급하여, 미래의 소비자인 학생들의 건강과 입맛을 사로잡기도 했다.

○ 또 식품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농식품 제조 창업 매뉴얼」을 제작, 배포해 식품제조 창업희망 농가들의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을 제정하여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아울러 올해 백운산마을을 신규로 지정하는 등 총 7개의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관리하고 있으며, 마을의 자립화를 위한 경영 지원 및 지도와 도시민 유치에 힘쓰고 있다.

○ 이러한 시의 지원과 마을의 노력에 힘입어 올해 중앙에서 전국의 체험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마을에 백학동, 발전가능마을에 덕촌, 메아리마을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 지난 5월에는 도선국사마을과 백운산자연휴양림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연휴양림 방문객은 도선국사마을의 체험·숙박서비스를 10%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휴양림 내에 마을 농·특산물 장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 시는 6차산업화 선도농가 육성시범사업으로 부저농원과 삼무루지 새싹삼농원을 선정하고 가공장과 체험장 신축을 지원했으며, 농업·농촌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농산물 구매로 연결시키는 ‘팜파티 (Farm Party)’를 운영했다.

○ 이 밖에도 6차 산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연구회 육성과 농촌교육 농장,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과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등 기존 사업이 6차 산업의 궤도 위에 오를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운영 평가와 과제

- 농산물마케팅 분야에서는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또한 6차 산업 관련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한 결과 농산물종합가공 시설지원사업과 6차산업 수익모델 지원사업 등 2건이 선정되어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 2016년에는 농산물마케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에 이어 농산물 홍보 방송을 제작하고 홍보·전시관 2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유통 조직 활성화를 위해 농가교육,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 대형 유통업체 입점 등 통합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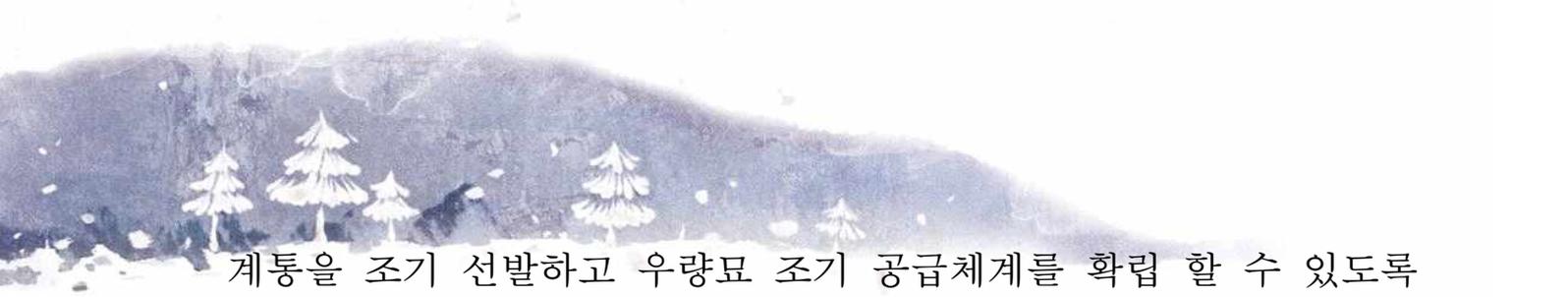
○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양매화빵과 매실음료 개발 지원,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 활성화 사업, 전통식품 특성화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을 신축하고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도 추진한다.
- 김병호 농산물마케팅과장은 오늘날의 농업은 기업처럼 마케팅이 필요하고, 농산물과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타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앞으로 농산물 마케팅과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의 식량 생산 기지와 새로운 문화 공간이 될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광양시

■ 곡성 ‘맘앓담은 딸기’ 동남아 첫 수출

- 농업회사법인 곡성멜론주식회사(대표 이선재)는 “지난 21일부터 곡성 ‘맘앓담은 딸기’ 브랜드로 동남아 지역으로 첫 수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 금회 수출 계약 물량은 22,950kg으로 전량 태국으로 수출, 고품질의 곡성딸기가 태국 소비자들을 만나게 됐다.
- 농업회사법인 곡성멜론(주)에서는 올해 딸기 재배농가 33명을 대상으로 공선회를 조직해, 철저한 재배 교육을 통한 엄격한 품질 관리로 고품질의 딸기를 2013년 12월 딸기 수출을 처음 시작해 매년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 시장에 신선딸기를 수출함으로써 농촌 인력 창출 및 농가소득 향상에 큰 몫을 하고 있다.
- 또 농촌진흥청 딸기수출연구사업단(단장 김승유)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을 연계해 ‘수출딸기 신품종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곡성의 주 생산 품종인 ‘설향’에서 국내 육성 품종과 유망



계통을 조기 선발하고 우량묘 조기 공급체계를 확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과실이 단단하고 당도와 식미가 뛰어난 수출용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센터 관계자는 “매년 수출물류비 지원이 농산물 수출증대에 미치는 누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곡성멜론(주) 이선재 대표는 “매주 2~4회(1,530kg) 정기적인 수출을 위해 해외 바이어들과의 꾸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곡성 딸기를 널리 알려 ‘기차타고 멜론마을’에 이어, 곡성딸기 브랜드인 ‘맘앓담은 딸기’도 세계로 도약하는 브랜드로 만들어 생산농가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에 보답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출처 : 곡성군

■ 해남군, 미니밤호박 출하 시작

- 겨울철 간식으로 제격 -

- 해남군에서 겨울 밤호박 수확이 한창이다. 올해 겨울 밤호박은 3ha, 20여 농가에서 총 42톤을 생산하여 2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 수확한 밤호박은 25~30℃에서 일주일 정도 후숙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충분한 후숙을 거쳐야지만 밤호박
- 특유의 단맛을 맛볼 수 있다. 해남에서 생산되는 밤호박은 시설 하우스와 덕시설을 이용한 공중재배로 햇별을 많이 받고 통기가 잘되어 밤맛인 분질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하여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 밤호박은 일반 호박에 비해 베타카로틴 비타민 B1, B2, C가 풍부해 감기예방 등 건강식품과 피부미용,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 또한 해남군은 밤호박 만쥬, 죽 등 가공상품 개발, 체험농장 조성 등 밤호박 6차산업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 출처 : 해남군

■ 장성군, 2015년 맞춤형 축산시책 ‘빛났다!’

- 전라남도 주관 2015년 녹색축산 시책 종합평가서 최우수 기관 선정 ‘쾌거’ -

- 장성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2015년 녹색축산 시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축산정책 ▲축산물유통 ▲축산자원 ▲동물방역 등 4개 분야에서 3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했다.
- 이에 군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사업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조사료 생산면적 확대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전남 축산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 도지사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2백만원을 받게 됐다.
- 장성군은 올 한해 사료값 상승과 수입산 축산물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 및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조사료연결체 제조 및 운송비 지원 ▲축산농가 한육우 고품질 장려금 지급 ▲우량정액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 특히 민선 6기 들어 수요자인 농업인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성해 축산관련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공약사업으로 연중무휴일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사업을 추진해 농업인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 유두석 군수는 “이번 수상은 관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군과 더불어 축산농가와 단체가 함께 협력한 결실”이라며, “내년에도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장성군

■ 진도군, 베타후레시 쌈배추 본격 출하

- 이마트·하나로마트 500t 납품 -

- 보배섬 진도군에서 생산된 기능성 쌈배추 '베타후레쉬 쌈배추'가 이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된다.
- 진도군은 "진도산 쌈배추인 '베타후레시 쌈배추'가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 350톤, 농협하나로마트 150톤 등에 총 500톤이 납품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 황산화작용과 피부노화 방지 등 베타카로틴이 강화된 이 배추는 진도 지역 농가의 고소득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일반 배추보다 베타카로틴 함량이 148배 높고 속이 노란 빛을 띠는 신품종이다.
- 특히 항산화작용 및 피부노화 방지는 물론 비타민A 생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베타카로틴을 강화한 기능성 배추다.

- 진도군에서 생산된 싹배추는 일반 배추에 비해 당도가 우수하고 아삭아삭한 식감과 맛이 뛰어나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폭발적인 인기몰이가 예상된다.
- 특히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하단 부위가 주황색이고 절단했을 때 잎의 하단 부위 중앙부가 주황색 줄무늬를 나타내 외관적으로도 일반 배추와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
- 또 3.3㎡당 일반 배추가 8~10포기 정도 수확되는 것에 비해 싹배추는 20~22포기 정도 수확돼 소득이 2배 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베타후레쉬 싹배추'는 진도 선진농협 싹배추공선출하회가 25세대 농가와 손잡고 7만5,000평에서 1,125톤 가량의 싹배추를 생산할 예정이다.
- 이동진 진도군수는 "진도산 베타후레시 싹배추는 잎수가 많고 버려지는 겉잎이 적어 품질면에서도 우수할 뿐 아니라 고소한 맛과 건강기능 효과도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과 대체 작목으로 집중 육성해 농업소득 5,000억원 달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모래와 자갈, 흙이 섞인 사토질로 물 빠짐이 좋아 싹배추 재배에 안성맞춤인 진도군은 전국 겨울배추 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 출처 : 진도군

6.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전남산 골드키위 ‘해금’ 일본 첫 수출길

- 24일 12t 선적, 내년 2월까지 50t 30만 달러 규모 예정 -
- 전라남도는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가 개발보급한 전남산 골드키위 ‘해금’이 24일 일본 첫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 이날 첫 수출 선적분은 12톤으로, 출하 시기인 내년 2월까지 30만 달러 규모인 50톤을 수출할 예정이다.
- 해금의 첫 일본 수출은 이낙연 전라남도지사와 일본 수입사인 인팜 코퍼레이션(Infarm Corporation)이 지난해 10월 나주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대한민국농업박람회에서 수출협약을 맺은데 따른 것이다.
- 인팜 코퍼레이션은 일본 내 4개 지사, 3천 600여 매장을 보유, 연간 3천만 달러 이상의 신선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 이 지사는 이날 순천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열린 수출 기념행사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일본 수출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수출길에 오르게 된 것은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농산품을 신뢰하기 때문이다.”며 “농업인은 신용을 생명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행사에 참석한 100여 명의 ‘해금’ 생산자와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를 격려했다.
- ‘해금’은 현재 해남·고흥·장흥 등 도내 7개 시군 150ha의 면적에 400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1천톤에 달한다.
- 맛과 당도가 뛰어나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 경진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앞으로 시장 진출 전망이 밝아 농가 고소득 품목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 출처 : 전라남도

7.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농촌진흥청, 겨울철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절감 방안 소개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시설원예 농가가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난방비 절감 방안을 소개했다.
- 겨울철 난방비는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중 30%~50%를 차지해 시설원예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우선, 난방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온력을 높이고 틈새를 막아 열손실을 막는다.
- 열이 새는 틈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에 요청하면 이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온실에 피복재를 한 겹 더 추가하고 알루미늄 보온스크린이나 부직포, 폴리폼 등을 여러 겹으로 누빈 다겹보온 커튼을 사용해 보온력을 높이면 난방비를 40%~50%까지 줄일 수 있다.
- 출입구, 수평보온커튼과 수직보온커튼이 만나는 틈새로 많은 열이 빠져나가므로 보온재를 활용해 틈새를 막아야 한다.
-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난방비를 낮추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 온풍난방기 버너와 열교환기의 분진(그을음)을 없애고,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로 빠져나가는 열을 회수해 온실 난방에 다시 이용하는 기술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난방비의 10%~20%를 줄일 수 있다.

- 공간 전체가 아닌 작물의 온도 민감 부위인 생장부(생장점, 관부, 뿌리부)만을 난방하는 생장부 부분 난방 기술도 있다. 공간 전체를 데우는 것에 비해 난방비를 20~30% 줄일 수 있다.
- 대규모 온실, 고온성재배 온실 등은 지열이나 발전 폐열 등을 이용하면 유류 사용 대비 80%의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 이외에도 중북부 지역의 경우 상추·시금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저온성 엽채류를 재배하거나 반축성, 억제 재배 등 에너지 절감형 재배 작형을 선택하면 난방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 기술과 관련한 기술은 농업 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영농 활용 기술로 제공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에너지환경공학과 문종필 농업연구사는 “난방비는 겨울철 시설원에 경영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 “평소에 온실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에너지 절감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전남 벼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7곳으로 확대계획

- 전라남도는 올해 해남과 영암·장흥·함평 등 6곳에서 실시했던 무논점과 사업을 내년에는 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전라남도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 기계 모내기 방식보다 수량은 0.7% 증가했고, 경영비는 13% 절감되면서 농가소득이 10a에 평균 62만9천 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겨울철 난방 에너지 절감 패키지화

- 전남농업기술원, 기술 종합 체계화... 생산비 절감 -

- 전남농업기술원이 시설원예 농가의 겨울철 난방 에너지 절감을 위한 패키지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 27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농업 에너지절감사업단과 함께 딸기·토마토 등 단동형 비닐하우스에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기술 패키지화로 농가현장에 바로 적용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 시설원예 작물의 생산비 가운데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어 시설원예 농가는 난방비 부담과 작황 부진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어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패키지화에 활용되는 실증기술은 햇빛 차단율 최소화해 작물이 충분한 광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상부개방형 다겹보온커튼, 열효율이 우수한 전열선, 축열식 공기열히트펌프, 순환식 수막장치, 저압 포그장치 등이다.
- 딸기·토마토에 알맞은 패키지 기술을 실증하기 위해 단동형 비닐 하우스에서 에너지절감 효과와 작물 생산성 증대효과를 평가하게 된다. 또 신기술이 농가에 조기 보급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의 모니터링, 현장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 전남농업기술원 김효중 연구사는 "난방비는 겨울철 시설원에 경영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난방에너지 절감 기술을 패키지화해 활용한다면 생산비가 절감되고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생산비 절감 모델 및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결과 평가회 열려

- 전남농기원, 생산비 절감 및 성공청년 농업인 양성에 총력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2015년도 생산비 절감 및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에 대한 결과평가회를 지난 10일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평가회는 1년 동안 진행되어온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금년도에 생산비 절감사업을 추진한 농가와 청년창업농,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평가회에는 총 15건의 사업 추진 사례가 발표되었고, 상호토론과 정보교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특히 이번 평가회에서 무안군 현경면에서 참깨 단지 10.3ha를 운영하고 있는 윤미순 대표는 참깨 농사를 짓는데 파종작업에 너무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재래종 참깨를 신품종인 '수지개'로 교체하고, 파종방식을 인력에서 트레이 육묘 후 기계이식으로 전환하여 10a당 수량이 71kg에서 112kg로 57.7% 증수되고, 생산비는 19.1% 절감 하였다는 사례를 발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에 참여한 고흥 '어설픈농부이야기' 최민주 대표는 완숙토마토 재배 시 관수를 억제하여 토마토의 당도를 높이는 재배법을 실천하여 일반 양액재배 토마토 당도 4브릭스 보다 당도가 1~2브릭스 높은 빨간 완숙토마토를 브랜드화 하여 2배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사례를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 임경호 농업경영연구소장은 “오는 2019년까지 생산비 절감기술을 실천하여 성공한 모델 20개 경영체와 농촌에 돌아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한 청년 농업인 100명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8. 정책 동향

◆ 농식품부, 농업분야 ICT 융복합 확산으로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을 구축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하여 스마트팜 보급, 창조마을 조성 등 농업분야 ICT 융복합 확산에 예산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정부에서는 농업의 고령화, 인력감소, FTA 등을 극복하고 첨단 과학기술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원예·축산분야의 스마트팜 확산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까지 시설 원예 769ha, 축산 186호를 스마트 팜으로 업그레이드 하였다.
- 스마트팜의 확산과 더불어 농업인의 재배기술 및 현장 활용역량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형 교육(1,596명), SNS 실시간 컨설팅(4,679건) 지원, 권역별 현장지원센터(8개소)를 통한 A/S(392건) 등 현장지원을 꾸준히 실시하였으며,
- 최근 도입농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서울대, 11월), 생산량이 25.2% 증가하고 품질이 12% 향상되고 고용노동비가 9.5% 줄어들어 소득이 31% 늘어나는 등 스마트 팜 효과가 입증되었다.
-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시설원예, 축산, 노지 등 각 분야별 특성·여건에 최적화된 스마트 팜 확산을 한층 가속화하기 위해 예산 지원을 강화('15 : 246억원 → '16 : 454)하고, 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스마트 팜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시설원예는 파프리카, 토마토, 화훼 등 수출 전략품목이면서 온·습도에 민감한 작물의 수출 재배단지에 ICT 융복합 첨단온실을 신규지원(101억원)하는 등 온실의 첨단화·과학화를 위해 예산을 확대('15 : 105억원 → '16 : 206) 하게 된다.
- '14년 양돈을 시작으로 '15년 양계 등 단계적으로 ICT 적용대상 축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축산분야는 '16년부터 젓소·한우 등 가축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생산성 향상에 핵심이 되는 로봇 착유기·자동포유기 등 스마트 축사 도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15 : 89억원 → '16 : 200)
- 보급 초기단계인 노지의 스마트팜은 규모화된 과원을 중심으로 병충해 예찰과 관수 및 제어 장비를 일괄 보급하여 비료, 농약 등 생산요소를 적기·적량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가뭄에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16 : 17억원)할 계획이다.
- 한편, 스마트 팜 운영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가 실습교육과 사후관리(A/S)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 도 농업기술원에 마련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8개소)와 연계하여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가 수준별 맞춤형(기초, 심화, 전문)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장비의 고장·장애 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 작년부터 운영 중인 기술지원 중심의 SNS 컨설팅을 생산·유통·수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참여농가들이 선도농가·전문가 등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생산분야 중심의 ICT 접목을 뛰어넘어 생산·유통, 교육, 문화, 의료 등을 융합한 창조마을 시범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마련된 ICT 표준모델의 소규모로 실증사례('15년 : 10억원)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각 도별 1개소 이상 시범사례('16년 : 45억원)을 조성하여 확산 거점을 만들어 나가고,
- '17년 이후 전국적 확산이 가능하도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지침을 보완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ICT 융복합 아이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기술 농업으로 한·중 FTA 대비 경쟁력 강화!

- 농촌진흥청, 한·중 FTA 대비 품목별 경쟁력 향상 기술 개발 전략 마련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기술적 대응 방안 전담팀' 운영으로 47개 품목별 기술 개발 전문가와 대내외 경제 전문가 등이 협력해 기술적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 그 중 25개 품목에 대해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 수출농산물 안전성 확보 등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특히, 중국과의 FTA에 대응해 우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자 2015년 연구비를 2014년보다 약 20% 늘린 190억 원을 투입했다.

○ 이를 통해 △우리 품종 보급 △노동력 투입이 적은 생산 기술 개발 △수출농산물의 수확 후 품질 유지 기술과 안전성 확보 기술 등을 추진 중이며, 2016년에도 21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그 동안 농촌진흥청은 중국과의 FTA 추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농작물 중 △식량·특작 분야 △채소·과수·화훼 분야 △축산 및 축산가공 분야의 25개 품목의 기술 현황을 우선적으로 분석해 신속한 기술 개발에 산·학이 힘을 모아 추진 중이다.
- 또한, 중국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해 우리 기호에 맞는 우수 국산 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대중국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품질 유지, 내부 결함 판별, 수출국 검역 대응과 안전성 확보 등 수확 후 저장·유통 기술 개발 부분의 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 품질이 우수하고 대외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는 딸기, 버섯, 신선유나분유 등의 축산가공품, 우리나라가 종주국으로 인정받는 인삼 등에 집중 투자하고, 화훼 선진국인 일본에 수출하는 국화를 비롯해 난, 장미 같은 품목에 투자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한·중 FTA에 대비해 품목별 기술 현황 및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묶어 책으로 발간해 배부했으며,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http://lib.rda.go.kr>)에서 PDF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이진모 국장은 “기존에 개발한 품질 향상 기술은 생산 현장에 적극 보급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과 실증 재배를 강화하고, 수시로 기술 수요를 조사해 중국과의 자유무역 환경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라며,
- “우리 농업이 안전성이 높은 고품질 생산 기술과 경영비 절감 재배 기술, 기계화 기술 개발 등에 투자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현장에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법률 개정('15.6.22.)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특정매개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특정매개체 : 철새 등 야생조류,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매개체

-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및 해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예찰·점검 등 방역조치의 내용·시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 규정

* 중점방역관리지구 : ① 고병원성AI 발생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② 제1종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 2회이상 발생한 지역, ③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 지정 지구에 대해서는 검사·예찰·소독 등 방역조치가 강화되며, 지정 지구내 축산농가는 방역시설(울타리, 담장, 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가축질병 발생국가 방문 후 국내 입국 시 소독 등 방역조치 대상이 되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의 구체적인 자격 범위를 규정

* 기존에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해 해당 자격 면허를 받은 자로만 규정하였으나, 면허 취득 후 축산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만 방역조치 실시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 마련

*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분기별 1회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및 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각각 일주일 내에 점검 결과를 시·군·구에 통지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변경·말소등록 기준 마련

- 시설출입차량(GPS 장착 대상)을 변경 또는 말소 등록하려는 경우,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

* 기존 시행규칙에는 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또는 말소 등록 관련 규정이 없었음

○ 축산농가에서 준수하여야 할 방역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 *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사람 및 차량에 대한 방역 조치, 야생동물 차단조치 등

○ 사료, 동물약품 및 분뇨 등을 오염우려물품으로 규정, 이동제한 등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 (오염우려물품) 사료·조사료, 동물약품, 깔짚·왕겨, 분뇨, 축산도구 및 기자재, 신발·작업복·장갑·모자 등, 원유·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 제1종 가축전염병의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 다만,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경우 가축을 방목할 수 있음

- 가축 방목의 허용이 가능한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의 세부기준을 정함

* 소독설비, 전실·울타리·담장 등 방역시설, 야생조류 침입방지 그물망 등

○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기존) 구제역의 경우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유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능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남도 상생협력 '서울농장' 본격 추진

- 전남도와 서울시의 상생 협력사업으로 귀농 희망자들이 사전 체험을 할 수 있는 '서울농장'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 전남도는 지난 6월 서울시와 상생협력사업으로 합의한 서울농장 조성과 관련해 서울시가 19억9천만원의 예산을 확정,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 이는 지난 3월 농수산물 판매·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이어 전남도와 서울시 간 2번째 상생사업 성과다.
- 서울농장은 함평읍 석성리 소재 구 석성초등학교 폐교를 리모델링해 조성된다. 2016년 5월 입주 예정이며, 부지와 농지 2만5천855㎡, 건물 962㎡ 규모다.
- 귀농희망자 15세대가 함께 머물며 사전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시설을 갖춘다. 또 서울시민 1천500명이 주말, 주중 등을 이용해 농촌체험을 하는 교육시설, 영농실습시설, 농촌체험시설 등도 들어선다.
- 도는 서울농장의 성공적 조성과 정착을 위해 서울시·농업기술원·함평군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농장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작물별 농촌지도사를 파견해 재배기술 등을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 귀농 희망자, 농촌 체험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의향 등 설문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고, 귀농인의 선도농가 현장실습 및 농가 취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또한 예비 귀농자가 전남도에 모두 귀농할 수 있도록 빈 집이나 농지의 매매나 임대 가능한 물건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 관련 도 정책사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출처 : 전라남도

◆ 식물 바이러스 조립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

- 리즈 대학 연구진은 동부 모자이크 바이러스(CPMV)의 빈 쉘(shell) 구조와 바이러스를 만드는 분자 접착제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성공
 - 분자 접착제는 계놈을 캡슐화해서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게 함
 - 이번 연구는 약물을 체내에 전달하고 질병을 표적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만드는데 큰 진전
- 약물 전달체로서 CPMV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혁신적인 전자현미경 발달로 바이러스의 내부 동작을 들여다 볼 수 있어 가능하게 되었음
- 이 연구로 인체에 안전한 식물 바이러스와 같은 입자들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단계에 접어듦
 - 바이러스 패키지 약물로 인체의 암 세포와 같은 특정 부위 또는 질병을 표적할 수 있음
 - 식물 바이러스는 이러한 연구에 이상적으로 계놈도 없고 스스로 복제나 돌연변이를 할 능력이 없음
- 이번 연구에 직접 전자-탐침 카메라를 장착한 차세대 300킬로볼트 전자 현미경을 사용

- 이 현미경은 130,000배까지 확대 가능하고, 이 장치는 분자의 상호 작용을 관찰할 수 있음
- 복잡한 생물학적 시스템 속의 각각의 아미노산을 원자 수준에서 관찰할 수 있고, 이것은 전례 없는 정밀도로 분자 수준에서 아미노산을 조작하고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음

출처 : <http://phys.org/news/2015-12-groundbreaking-microscopy-secrets-virus.html>

◆ 창의력 증대를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 신기한 디자인 제품

- 젠틀맨 마이클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쓰레기통이지만 검정 봉투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다양한 헤어 스타일을 연출
- 코스타(컵받침) 셋트로 평시에는 선인장 소품으로 사용
- 혁신적인 운동화로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Wrap Around Shoes는 발을 감싸는 형태의 운동화로 개인의 발 사이즈는 구별 없음
-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전자파 차단을 위해 콘센트의 스페어 구멍을 막는 제품을 밴드로 만들어 독특하고 재미남



*출처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마케팅트렌드

◆ 농촌진흥청, 식의약품 신소재용 등 유용 유전자원 47개 발굴

- 농업 유전자원의 산업적 활용 확대를 위해 유전자원 발굴
 - 나고야 의정서 발효 대응 식의약품 소재 등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적 활용에 적극 지원
 - 농촌진흥기관, 대학, 종묘회사 등과 함께 연간 1만 5천여 점~2만여 점의 특성 평가 실시
- 식의약품 신소재용, 식량작물용, 원예특용작물용 등 3개 분야 (10개 작물 47개 유용 유전자원 발굴)
 - 식의약품 신소재용 유전자원 (항치매 활성이 높은 작약 2개, 항산화성이 높은 모란 2개)
 -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화 억제, 치매 예방 등 기능성 식의약품 소재로 활용 가능성
 - 식량작물용 유전자원 (벼 8개, 밀 8개, 수수 5개)
 - 벼 흰잎마름병 및 밀 녹병 저항성, 수수 고허산화 활성 및 고기능성 잡곡 활용 가능성
 - 원예특용작물용 유전자원 (고추 8개, 배추 2개, 갓 4개, 상추 2개, 홍화 6개)
 - 고추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 배추 뿌리혹병, 상추 시들음병과 무름병 저항성, 갓, 홍화 고기능성
- 발굴한 유용자원의 이용
 - 발굴한 유용 유전자원은 DNA 정보 등 상세한 내용을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누리집(www.genebank.go.kr)을 통해 제공

- 첨단생명공학을 연구하는 기초 연구 재료와 종묘회사, 품종 육성 작목 기관 등에 분양해 새 품종 개발의 원천 소재로 활용할 예정
- 대사성 질환 예방 등 기능성 식약품 소재, 전통식품 소재로 식약품 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해 고부가가치 창출 기대

*출처 : 농촌진흥청

◆ 슈퍼곡물, 왜 인기일까?

○ 다이어트와 미용 열풍의 선두주자

- 귀리 : 함유된 베타-글루칸 성분은 체지방 성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 렌틸콩 : 고단백, 식이섬유가 고구마나 바나나보다 열배 이상 함유
- 치아씨드 : 물을 풍부하게 흡수하는 성질 때문에 적게 먹어도 오랜 시간 포만감을 줌
- 병아리콩 : 비타민 C와 E 성분이 피부미용을 돕고 노화 방지

○ 글루텐 제로 식품을 찾아서

- 글루텐은 알레르거나 아토피, 소화불량의 유발 요인임
- 퀴노아와 아마란스에는 글루텐이 없고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영양성분 함유
- 퀴노아는 필수 아미노산이 갖춰진 단백질 식품임

○ 슈퍼곡물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 주식인 밥으로 : 쌀·보리·현미 등 잡곡과 섞어서 밥으로 즐김
- 볶거나 갈아서 먹기 : 볶아서 익힌 후 우유나 요구르트에 섞어서 먹으면 한끼식사 대용
- 고명으로 뿌려서 먹기 : 견과류처럼 샐러드, 무침요리에 뿌려서 먹음

* 출처 : 농식품 이슈

9. 해외 농업정보

◆ 일본, IT기술 활용한 토마토 생산 효율화 실시

- 일본 식품기업 카고메는 IT를 활용한 농법으로 가공용 토마토생산을 실시함. 또한 NEC사와 연계하여 세계각국의 계약농장에 최적화된 재배방법을 도입함.
- 이는 인공위성 및 드론 등 농장에 설치한 센서로 수집한 기상정보 및 토양데이터를 분석하여 각국 농가 수확량을 최대화시키는 최적의 물과 비료의 배합 및 공급방법을 제안하는 것임.
- 먼저 해외 대규모농장에서 노지재배를 하는 가공용 토마토를 대상으로 시작할 예정임.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향후 국내 토마토 농가 및 자가농장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
- 카고메는 반제품을 포함하여 연간 약 100만 톤의 가공용 토마토를 조달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약 800개의 계약농가로부터 주스용 토마토를 조달하고 있음. 가공용 토마토는 포르투갈·대만·호주·터키 등 해외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대규모 노지재배는 하우스재배보다 생육관리가 어려워 농가의 경험이나 기술에 의해 수확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재배 노하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수치화하여 효율적인 재배기술 보급을 실시함.
- 세계적으로 가공용 토마토 소비량은 2000년에는 약 2,600만 톤이었으나, 신흥국의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 등을 배경으로 2012년에는 4,000만



톤을 돌파하였음. 향후 2021년에는 소비량이 5,000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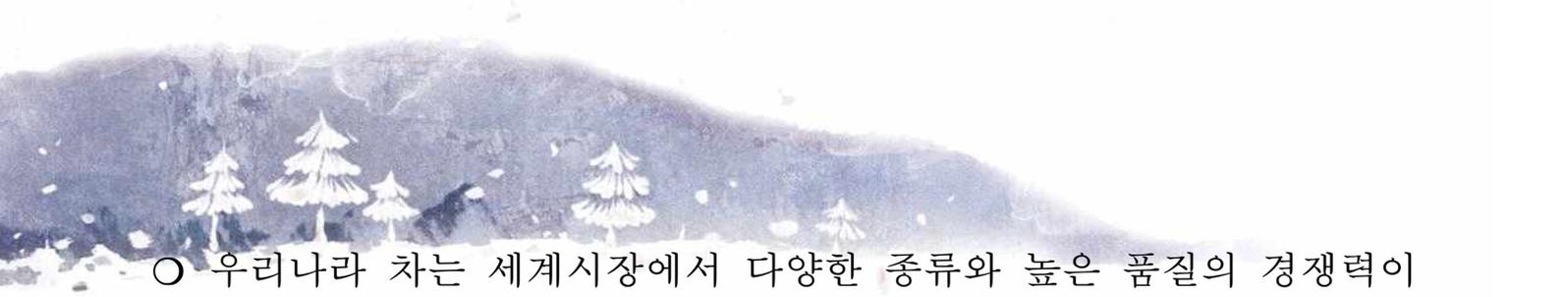
- 케찹 및 소스의 원료가 되는 토마토 페이스트(tomato paste) 가격은 10년 간 2배 이상 인상되었음. 카고메는 세계 3위의 케찹 브랜드로 토마토 생산을 위한 주요산지 재배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수확량 확보를 위해 NEC사의 IT기술을 도입함.
- 가공용 원료로 쓰이는 농산물의 경우, 세계 주요산지에서 조달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수확량 확보가 안정적인 제품공급과 가격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IT기술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가공용 토마토, 파프리카와 같은 비교적 생산규모가 큰 농산물의 경우, IT기술을 접목시킨 공급량 안정화와 효율성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업체도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IT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출처 : 세계농업

◆ 스페인, 기능성 차(茶) 소비 증가

- 스페인 식품관리공단(Mercasa)에 따르면, 2014년 스페인 내 유통된 차(茶)류 규모는 총 4,425톤으로, 약 7억 5,000만 유로에 달하며 전년 대비 1.7% 소폭 증가함. 2014년 스페인 국민 1인당 차류 지출액은 약 7~8유로 선으로 집계됨.
- 현지 조사에서 스페인 국민 중 31.5%는 긴장 완화와 심신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차를 마신다고 응답할 만큼, 차는 스페인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음료 중 하나로 손꼽힘.

- 스페인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차는 천연 녹차, 홍차로 2014년 전체 판매 중 수량기준 22.5%의 비중을 차지하며,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차는 국화차로 전체 소비의 15.6%를 차지함.
- 특히, 스페인 국민들은 국화차를 전통적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데,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임산부들이 즐겨 마심. 그 밖에도 가향차, 민트차, 라임꽃차 등의 소비 비중은 각각 11.6%, 6.5%, 5.4%에 달함.
- 최근 들어 기능성 차 등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음.
- 기능성 차, 차게 마시는 차 등 전통적인 개념의 차에서 벗어난 신제품의 판매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Mercasa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제품의 판매가 2014년 들어 전년대비 4.9% 증가하였으며, 반면 민트차나 일반 녹차와 홍차는 같은 기간 각각 6%, 0.2% 감소함.
- 노화방지나 수면 유도, 힘을 북돋아 주는 효과가 있는 제품의 판매가 일반 차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
- 2014년 기준, 스페인의 차류 수입규모는 2,867만 유로로 전년대비 11.6%, 2010년 대비 47.2% 증가함. 또한 차류 수출액은 1,298만 유로로 수입의 절반 수준이며, 전년대비 1.9%, 2010년 대비 159.6% 증가함.
- 스페인의 차류 최대 수입 대상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인근 유럽 국가로 2014년 수입비중이 각각 20.6%, 16.5%, 14.7%에 달함.
- 아시아국가 중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2014년에는 약 258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입 중 9%를 기록하였으나, 대한민국 수입액은 약 700달러로 미미한 수준임.



- 우리나라 차는 세계시장에서 다양한 종류와 높은 품질의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시장에서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임.
- 특히 우리나라 차 중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품이 있어 기능성 차 제품을 찾는 스페인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기대됨.
- 스페인 차 시장은 상당 부분 현지 또는 다국적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어 초기 진출이 까다로움.
- 또한 일반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대형마트 체인기업들은 한국에서의 수입을 꺼리는 편이며, 일부 수입유통 전문업체에서는 세계 각국의 특색 있는 차류를 수입하고 있음.

* 출처 : 스페인 식품관리공단, Global Trade Atl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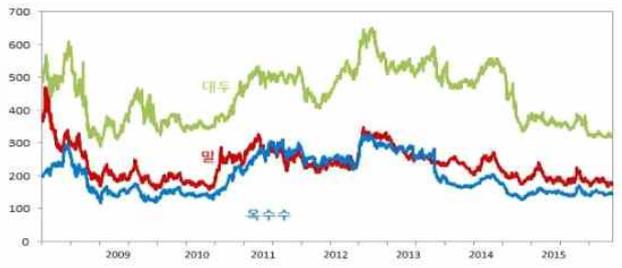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12. 28.(시카고 선물거래소)

브라질 강우예보에 대두 가격 하락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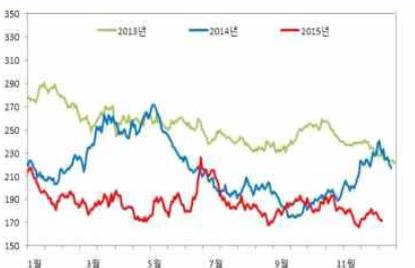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12.24)	전일대비	전월평균 ('15.11)	2014 평균
밀	171.74	▼0.4%	182	216
옥수수	143.46	▼0.3%	144	164
대두	321.58	▼0.7%	319	455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결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16년 3월물, 대두: 16년 1월물) 경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주간 수출 판매가 약 37만 톤을 기록하며 전망 범위였던 25~45만 톤을 충족하고, 지난 3주간 가장 많은 양의 수출을 보였으나, 밀 수입국으로 하여금 여전히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임. 실제 이집트는 3년만에 처음으로 아르헨티나 밀을 구입한 반면 미국과의 체결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며 프랑스 정제 밀 또한 하락한 것으로 전해짐.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상당한 양의 공급과 빈 궁한 수출 수요와 더불어 3월물 옥수수 계약의 부진의 압박으로 하락 마감함. 주간 옥수수 수출 판매는 80만 톤으로 전해짐.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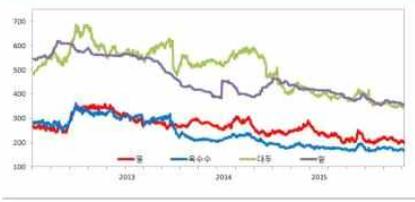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세계 최대 대두 수출국인 브라질의 대두 작황에 유리한 강우가 예보됨에 따라 예상보다 강세인 미국 대두 수출 수요를 무색하게 만들며 1주일래 최저가격을 기록하며 하락 마감함. 거래자들은 그동안 가뭄으로 어려웠던 브라질 주요 대두 생산지 Mato Grosso 지역에 2주 동안의 강우가 예상되며 이는 충분히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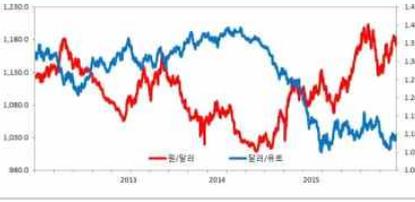
관련동향

- 곡물 수출 가격은 성탄절 휴일 및 조용한 거래에 약보합세
- 국제유가는 선물시장 매수세 유입, 미 달러화 약세, 주요국 경기지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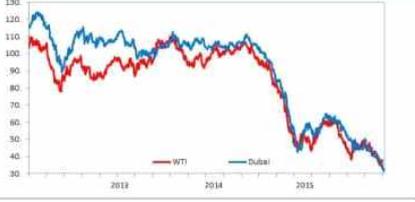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곡물수출가격 (FOB)		구분	국제유가 (US\$/B)			
	기준일	전일대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98	▼0.5%	환율	원/달러	1171.7	▼0.4%
	옥수수	166	-	환율	달러/유로	1.0908	▼0.4%
	대두	352	▼0.3%	국제유가 (US\$/B)	WTI	38.1	▲1.6%
	쌀	356	-		Dubai	32.83	▲3.2%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2016년 2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12.23(수출가격), '15.12.24(환율), '15.12.24(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2016년도 농업인 교육계획 확정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농업·농촌을 위한 리더 양성과 작목별 생산비절감, 유기농업 등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2016년 농업인 교육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농업인 교육은 농업인전문기술 교육 등 총 7분야 63과정 2,6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단기과정으로 고부가가치향상을 위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18과정 800명, 농산물 전자상거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보화교육 7과정 200명, 성공정착을 위한 귀농·귀촌인 영농기술 교육 10과정 300명,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 19과정 1,075명,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도농상생을 위한 도시 소비자 교육 4과정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중장기 과정으로 저비용 고소득 농업실천과 선도 농업인 육성을 위한 1년제로 운영하는 전남생명농업대학 3과정 75명, 2년제로 운영하는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2과정에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생산비 절감 유기농업, 청년일자리 창출 등 도정 핵심과제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중심의 농식품 6차산업 분야에 가공·유통·체험·관광 등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과 창조적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농업인 양성을 위해 전남생명농업대학에 청년창업, 유통·6차산업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귀농·귀촌교육 단계별(준비단계, 정착단계, 심화단계)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하였다.

- 특히 유기 벼·채소·과수 등 유기작목 및 유기농자재 제조 등 생산비 절감기술을 역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농업기계과정에 드론과정, 정보화교육에 3D프린터 이해와 활용과정을 신설하여 최첨단 농업기술을 농업에 접목시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인들의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 농업인교육은 2월부터 교육을 시작하여 12월 상순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신청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jares.go.kr)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교육개시 10일전(선착순 마감)까지 신청하면 된다.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 김용호과장은 “올해는 한중FTA 발효 등 국내외적으로 급변해가는 농업환경 속에서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고 최 우수 강사진을 섭외 활용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 한다.” 고 밝히면서 많은 농업인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당부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국제, 국내농업박람회 통합 2017년부터 2년마다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 오는 2017년부터 2년마다 기존의 국제농업박람회와 대한민국농업박람회를 통합해 국제농업박람회가 개최된다.
-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는 21일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제23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두 박람회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 국제농업박람회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 농업박람회는 국내와 국제로 분리돼 국내박람회는 매년 '대한민국농업박람회'로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했으며, 국제박람회는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해 2012년과 2015년 두 번 개최됐다.
- 조직위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농산물과 농식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차기국제농업박람회 기본계획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국내·국제박람회 통합 여부, 개최 주기, 개최 기간 등 박람회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 그 결과 국내와 국제로 이원화된 박람회를 국제농업박람회로 통합하고 개최 주기는 2년, 기간은 10일 내외로 하기로 확정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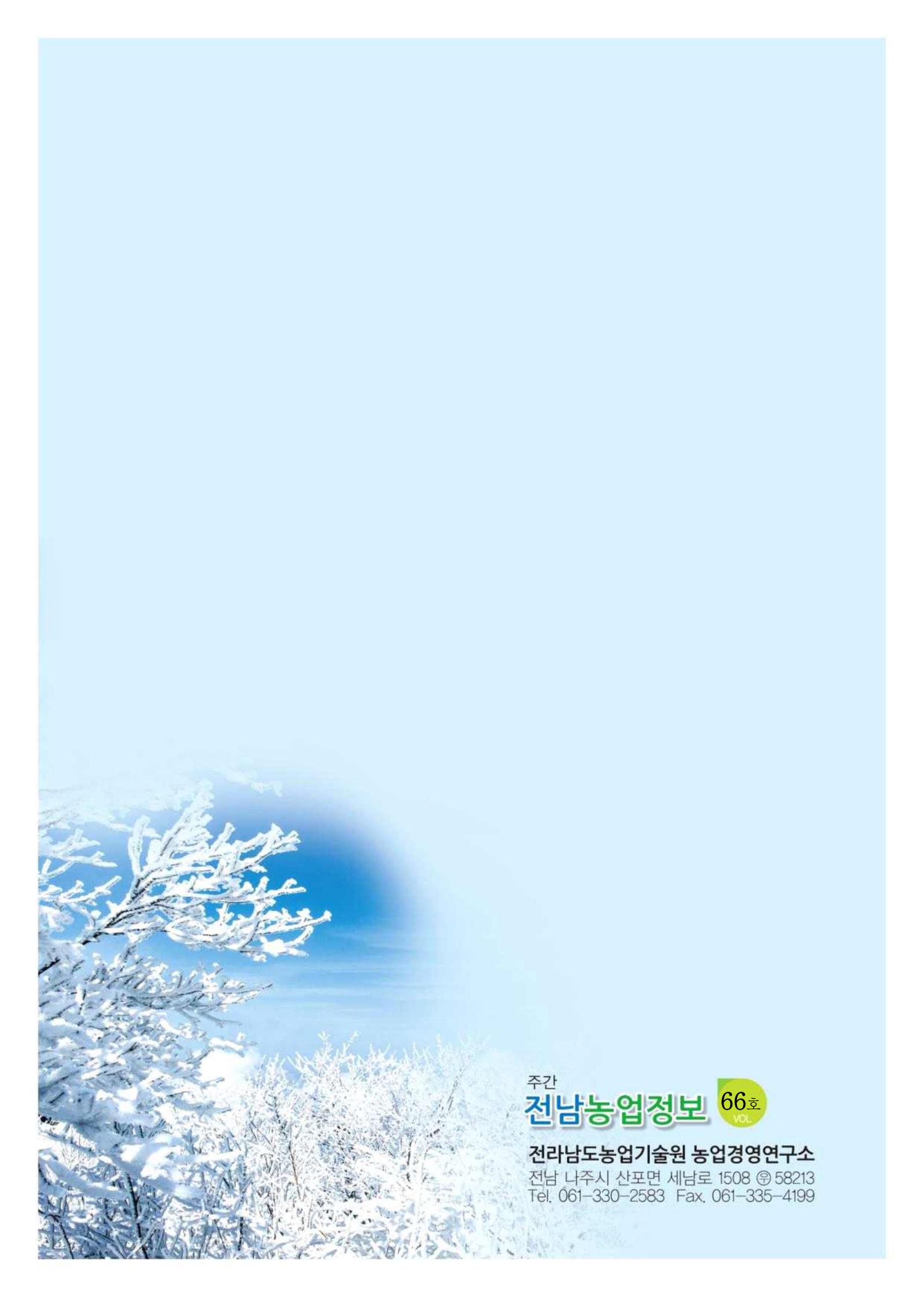
◆ 전남농업기술원, 전국 농촌진흥사업 우수 기관상 수상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이 전국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다.
-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2월 23일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중앙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소속 공무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2015년도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에서 전국 농촌진흥사업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타 시·도에 비해서 농업연구와 농촌지도사업에서 탁월한 창의력과 실용적인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보급하여 전남 도민의 농가소득 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이 평가는 농촌진흥청이 농촌진흥사업 정책목표 달성도, 농업 생산성 향상, 신기술보급사업 추진 실적, 농촌지도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등 평가 지표에 따라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 시상한 제도이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이번 우수 기관상 수상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현장 고객 중심의 농촌진흥사업을 펼쳤고 농업인의 애로기술 해결과 농가소득 향상,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새 기술개발보급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최경주 원장은 “이번 농촌진흥사업 우수 기관상 수상은 전 직원이 일치 단결 하여 친환경농업과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업무 추진에 노력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여 농업인 에게는 희망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주간
전남농업정보 66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